내 손 안에 하나님 나라, 진리로 세계를 열어주는

GPM
GOSPEL & PRAYER MEDIA
왕하 2:21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 Gospel Prayer Newspaper | 2022. 1. 1 ~ 2022. 1. 22 제259호

포토에세이

▲ 잠비아의 다음세대. 제공: WMM

예수의 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물통에서 쏟아지는 물을 받으려 아이들이 너도 나도 손을 뻗는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물이 더러움을 씻어 내리며 시원하게 몸과 마음을 적신다. 미소를 띠며 물을 붓고 있는 소녀의 눈에는 지금 무엇이 담겨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인생들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죄가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쏟으신 피로 모든 죄인들은 정결케 됐다. 죄인들이 정결해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 파괴되는 죄의 짓눌림과 폭발해 버리는 사탄의 조소와 박살나버리는 죄의 멍에와….

찬양하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케 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경배하자!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레위기 16:30) [GPNEWS]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코로나 관련 교회 대응책 제시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구청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요구하는 교인 명단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들에게 교회 출석 여부를 묻는 등 종교활동에 관한 질문은 차별위반 행위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교회에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대처해야 할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전국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대응 전략수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교회에 대한 방역대책에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손 목사는 세계로교회에서 3명의 교역자가 코로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효과가 크다며, 교회들이 코로나 전담반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교회가 이 같은 조직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및 접촉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고 교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나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 또한 전담반에 신속히 연락을 취하게 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고, 기다리는 동안 밀접 접촉자들을 선제적으로 차단함으로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청 등에서 구청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교회 내 확진자 발생으로 교인 명단을 요구할 경우,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외에는 법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다(감염예방법 76조 2항)고 했다. 이는 교인 명단을 제출하면 모든 교인에게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취하고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 모두를 교회발 확진자로 분류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교회 외 사적모임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교인들을 교회발 확진자로 묶는 경우,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며 지자체는 이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감염예방법 34조 2항)고 덧붙였다. 특히 동선에 마스크를 벗는 식당이나 사적모임들이 있었음에도 교회발이라 명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그동안 교회 방문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교회를 방문한 다른 교인들이 추가 검사 후 양성 판정 시, 다른 일시·장소에서 코로나에 걸렸을 수 있으나 모두 교회발 확진자로 분류해 교회발 확진자 인원을 다수로 부풀려서 발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역학조사관이 교회 방문 여부, 혹은 방문 교회 이름에 대한 질문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종, 종교, 피부 또는 국가, 민족, 이름을 가지고 차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복한다면 강력 항의하고 시정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출석교인 학생 중 누군가 확진됐다고 해서 교회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특정 교회에 다녀온 학생들은 전부 검사를 받으라고 할 때 여기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감염예방법 18조의 4)고 덧붙였다.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43)

죄는 '열매'가 아닌, 열매를 맺는 '나무 자체'입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흔히 우리는 죄를 '열매'로만 봅니다. 나무로 비유해 보면 그 나무에 죄의 열매가 많이 맺혔으면 아주 흉악하고 나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간음, 음란, 불순종, 도둑질, 살인, 폭력 등 죄를 무수히 지은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흉악한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태신앙들이 여기서 혼돈에 빠집니다. 죄가 단지 열매뿐이라면 모태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지을 기회가 훨씬 제한적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그리 큰 죄인임을 절감할 이유가 없고, 십자가가 절박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몇 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죄를 '열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죄를 이해합니다.

죄가 단지 열매뿐이면 회개해서 죄를 따버리면 될까요? 열매를 다 땄다고 해도, 그 다음에 죄의 열매가 또 안 맺힐까요? 그 다음에는 더 충만하게 맺힙니다. 그러면 또 따고 버리고, 또 따고 버립니다. 그러나 죄는 이렇게 눈가림만 한다고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마태복음 5:28). 간음이라는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굳이 따진다면 음욕이 없는데 간음이라는 행위의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 음욕 자체를 간음이라는 열매와 분리해서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열매가 잠깐 맺히거나 조금 맺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충분히 열매 맺을 가능성을 가진 이 '나무 자체'인 것입니다. 그 열매를 가능하게 한 '존재로서의 죄', 바로 '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른 채 죄의 열매만 안 맺으면 깨끗하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 죄인'인 나의 생명 자체를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GPNEWS]

일러스트=김경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운영시간 10~22시
상담시간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1670-3160

美 사우스다코타주, 공립학교서 '기도 시간' 갖도록 법안 제출

▲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 출처: 유튜브 채널 Governor Kristi Noem 캡처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매일 아침 학교에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데일리메일 등이 최근 보도했다.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는 지난해 12월 13일(현지시각) 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 묵상 시간을 갖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고,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이 시간을 이용해 짧게 기도하거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이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 내의 모든 공립학교는 매일 아침 학생과 교사들에게 최대 1분의 묵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시간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에는 학교가 침묵 시간을 종교 행사로써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에게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배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의 있는 분위기를 정하기 위해, 등교 이후 묵념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사우스다코타주 외에도 오하이오주 상원은 지난 10월 학교 내 '침묵 시간'을 두는 법안을 도입했다. 또한 플로리다주의 론 드샌티스 주지사도 지난 6월, 학생들에게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스스로에게 적합한 방식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플로리다의 '침묵 시간' 법안은 학생들이 '기도'하도록 하며, '모든 기관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시도에 대항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미국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 대화나 연설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기도할 수 있고, 반 친구들과 자유롭게 종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분위기로 흘러왔다. 2013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나선 로이 코스트너 4세(Roy Costner IV)가 피켄스 카운티의 학교 행정 당국이 졸업식을 비롯한 학교 행사에서 기도를 금지한 정책에 반발해 학교에 승인 받은 연설문 대신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또한 2015년, 플로리다 고교 체육협회(FHSAA)는 캠브리지 기독학교와 잭슨빌 기독학교가 올랜도 시트러스 보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 주정부의 재산인 공공 확성기 시스템을 사용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킨 바 있다.

현재 노엠 주지사는 트렌스젠더 선수들이 학교나 대학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나, 이 법안이 법정에서 기각될 것을 우려해 현재 이러한 법안을 또 한 번 제안한 상태다. 성경적 가치를 수호하는 노엠 주지사를 비롯,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보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쿠바, 1년 간 정치범 5배 증가… 이념과 상관없는 종교지도자 구금

공산국가 쿠바의 정치범 숫자가 최소 805명으로 1년 만에 5배나 증가했다고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전했다. 수감자 대다수는 '양심수'로서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공산주의 독재 종식을 요구하며 벌인 반정부 시위에서 체포됐다. 당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역시 체포 및 구타를 당했다. 쿠바는 지속적인 종교 자유 침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 정당한 요구를 한 시민들은 물론 기독교인들을 계속 박해하며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공산주의 쿠바 정부를 돌이켜 주십시오.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고, 쿠바 교회들도 억울한 핍박에 짓눌리지 않고 충만한 생명으로 견고히 서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서울시, 20년 전 비해 출생아 감소와 가정붕괴 현상 두드러져

서울시가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자료를 토대로 결혼, 이혼, 출생, 사망으로 인한 서울인구의 변화모습을 분석한 결과, 20년 전에 비해 결혼 건수는 절반으로 줄고, 출생아는 64% 감소했으며, '황혼 이혼'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가정붕괴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지난달 16일 발표했다.

이 땅의 국민과 정책 결정권자들이 생명과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자녀와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정의 충만한 기쁨과 연합의 아름다움이 부부와 자녀들에게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소망합니다.

켄터키 등 미국 6개 주, 토네이도 강타… 최소 88명 사망

지난 12월 10일(현지시간) 밤 미국 중부를 강타한 토네이도(회오리바람)로 미국 전역에 집계된 희생자만 최소 88명이 발생했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켄터키주에서만 최소 74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켄터키주에서는 현재 100명 이상이 실종된 상태다.

사람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재해로 터가 무너지고 가족을 잃은 미국인들을 위로해주십시오. 실종된 자들을 찾아주시고, 무너진 터를 재건해주시며,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터만 있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케 해주십시오.

[GPNEWS]

인도 힌두 민족주의, 231명 기독교인을 강제로 힌두교로 재개종시켜

인도에서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힌두교로 재개종시키는 프로그램인 가르와파시(Gharwapsi)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오픈도어 선교회가 전했다.

현재 인도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반대시위, 혐오발언, 허위고소 등 잔혹한 행위들이 지역 신문은 물론 국영 미디어 방송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증오심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최근 빌(Bhil)이라는 한 힌두 민족 공동체 지도자는 최근 기독교인 다섯 가정을 힌두교로 다시 개종시켰다. 빌 민족 지도부는 '집으로 돌아오라'는 뜻의 가르와파시 프로그램을 통해 이 일을 추진했다.

빌 민족 지도자는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실수를 저질렀고 힌두교로 돌아오기 원한다고 했다며, 이에 열성 지도자들은 힌두교 사제의 도움을 받아 예배의식을 조직하고 기독교인 가족들에게 힌두교로 돌아가기 위한 기도를 하게 했다고 밝혔다.

열성 힌두교도들은 모든 가정에서 힌두교 신과 여신들을 위한 예배가 있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를 하나의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힌두교협회는 기독교로 회심한 가정들에게 힌두교로 재개종을 위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 힌두교 지도자는 인도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힌두교로 재개종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을 비난하며, 미디어 매체에 대해 힌두교 재개종 운동의 성공을 위해 도움을 호소했다.

빌 민족 지도자는 2021년 5월부터 지금까지 총 231명의 기독교인들이 힌두교로 재개종했다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가르와파시 운동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오픈도어 인도 현지파트너들은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의 강압적인 개종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들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개종 소식을 과장하고 조작하며 사회 속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힌두교 개종 운동의 압력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연합해 성령 안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조속히 개종 운동이 끝나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2년 1월 3일 ~ 2022년 1월 22일

1월 3일 ~ 1월 8일 ▶경기 인천 / 드림교회(황**)010-5007-8488, **1.3(0~24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1.3(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3~8(10~20시)** ▶서울 광진 / 빛과 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1.4(11~13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6(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박**)010-7709-0691, **1.7(12시)~8(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1.7(15~22시),9(15~17시)**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김**)010-4013-5346, **1.8(09~18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625-6004, 그 외 5교회 진행중.

1월 10일 ~ 1월 15일 **1.10(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1~14(14~16시)** ▶경기 광주 / 창대교회(김**)010-4715-3727, **1.14(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14~15(0~24시)** ▶대전 서구 / 광야 아둘람 공동체(정**)010-3697-0641, **1.15(09~21시)** ▶경남 진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그 외 3교회 진행중.

1월 17일 ~ 1월 22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1.17(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7~21(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19(0~24시)** ▶제주 조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1.21(13~16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1.21~22(09~21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 외 2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인체 부검을 하면서 인간의 창조가 믿어졌어요”

진리를 따르는 **이왕재** 박사(바노바기 암예측 클리닉 원장)

ⓒ 복음기도신문

최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아 면역학자로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견해를 활발하게 밝히고 있는 이왕재 박사를 만났다. 수많은 교회와 집회 현장을 다니며,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방역대책에 대한 견해와 면역학 전문가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이 박사의 신앙 이야기와 최근 코로나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를 청취했다.

이왕재 박사를 만난 곳은 서울 강남 한복판 병원 건물이었다. 서울대 의대 교수에서 은퇴한 이후 강연 활동으로 바쁜 줄 알았는데, 그는 뜻밖에 2021년 7월부터 바노바기 암예측 클리닉 원장으로 평생 경험한 전문지식을 통해 암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 그동안 ‘비타민C 박사’로도 유명하셨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아 면역학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항암병원 원장은 뜻밖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해부학을 가르치고, 또 면역학자로 활동하며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암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문제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암퇴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발견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험으로 암환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막연히 교회만 출석했어요

- 네, 그러시군요. 오늘은 먼저 박사님의 신앙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극적인 체험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교회만 다녔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생각만 했어요. 장로님 아버지와 권사님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서 1등하는 그 재미로 교회에 다녔어요. 대학에 다닐 때도 크리스천이라고는 했지만, 구원받았다는 감격보다도 ‘크리스천은 성실하게 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의료봉사 클럽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을 읽게 하시고 모르는 부분을 깨우쳐 주셨어요.”

-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대학 교수가 되면서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됐어요. 1990년 2월, 교수가 되어서 첫 출근을 했는데 법의학 교실에서 부검을 한다고 들어오라더군요. 저는 해부학을 전공했는데, 부검은 해부학하고 달라요. 왜 죽었는지를 찾는 일이에요. 부검은 보통 가슴을 먼저 열어서 생명과 직결된 심장, 폐 같은 곳을 먼저 보죠. 그리고 배를 열어서 장기를 봐요. 이날 부검을 하러 들어갔는데 20대 전후반 여성이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이날 새벽에 들어왔던 환자였어요.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같이 보였어요. 칼을 대는 순간 마치 이 사람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게 됐어요.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었어요. 무슨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냐고 믿지 못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이래도 모르겠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 필리핀 컴패션 활동 참가 시 어린이들과 함께! 제공: 이왕재 박사

- 놀랍네요. 부검을 통해 생명이 있고 없음의 차이를 확실히 깨닫게 되셨군요.

“그때부터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성령 체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성경통독을 해야겠다고 2~3번 통독하고 이후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10번을 더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알게 되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부검하며, 하나님의 창조역사 믿어져

- 이후의 신앙생활이 궁금합니다.

“어려운 고비도 있었어요. 결혼을 1984년에 하고 아이가 생겼는데 유산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산부인과에 아내를 데리고 가기가 싫어서 내가 의사랍시고 아내를 치료해줬는데 잘못했는지 2차 불임이 왔어요. 여러 시도 끝에 시험관 아기로 어렵게 딸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6살 때, 하루는 병원 주차장에서 운동화를 고쳐 신으려고 숙이고 있었는데 들어오는 차들이 그 아이를 못 본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있던 주차 요원이 ‘스톱!’하고 소리쳤는데 이미 앞바퀴가 딸아이를 밟고 지나간 거예요. 아내가 놀라서 보니 아이가 차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누워있는 걸 봤어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겼어요. 길고 긴 사연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아이는 장애가 없이 회복이 됐어요. 만약 차 바퀴가 아이 배로 지나갔으면 폐와 심장이 찢어져서 바로 즉사했을 거예요. 다행히도 심장 밑으로 바퀴가 지나가서 살았어요. 그래도 사고 직후 검사 결과, 간이 짓뭉개져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아이여서 그런지 그 간이 2주 만에 재생되었어요. 그렇게 2주 만에 퇴원하고 지금은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

-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그런 큰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딸아이가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었어요. 성령 체험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모자랐던 것 같아요. 교회를 판단하게 되면서 교회와 여러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이 일이 일어났어요. 딸아이 일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되고 이제는 누가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믿음으로 다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 다시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어떻게 의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길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천사들을 보내셔서 제 갈 길을 교정해주셨어요.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흙수저에요. 농사지으시는 시골 아버지 밑에서 5남 5녀 중 9번째였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아버지께서 너 같은 녀석은 서울로 가야 된다고 하셔서, 15살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판검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골 중학교에서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선생님 도움으로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 학생들의 아버지가 마침 의사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왜 법대를 가려고 하느냐, 의대가 최고라고 하셨죠. 그런데 막상 법대에 떨어졌어요. 떨어질 성적이 아니었는데요. 지금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재수를 결정하면서 저를 돌아보는데, 제가 실험을 좋아하고, 실험 경시대회에서도 1등 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문과로 갔던 게 잘못 됐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의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의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생각해 보면 기가 막혀요.”

- 또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1987년에 군대에 갔는데 공중보건의로 경남도 방역관으로 근무하게 됐어요. 그때 마침 경남에 국립대학인 경상대학이 생겼는데, 교수가 몇 명 없다면서 그곳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마침 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비타민C에 대한 강의를 했던 분이었어요. 그분 때문에 저도 비타민C를 먹고 있었는데, 후배가 왔다고 비타민C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때 비타민 먹는 게 정착이 되면서 제 몸이 많이 좋아졌다는 경험한 이후로 본격적으로 복용하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비타민C 접하며 관심을 갖다

- 그렇게 비타민C를 접하신 거였군요.

“저는 해부학을 전공하고 해부학 교수가 됐어요. 해부학은 의학계에서 3D직종이에요. 몸에 대해서 모르면 의사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해부학을 공부하게 하신 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항상 느껴요. 40년 동안 해부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에 대해 해박해졌어요. 그런 훈련을 대학에서 40년 동안 시키시고, 지금은 암예측 클리닉에서 암을 걱정하는 분들을 돕고 있어요. 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 최근 코로나와 관련한 일련의 이슈가 그런 영역인 셈이군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던 와중에 폭풍을 만났어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고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시대에 기독교인이 할 일이 있다고 여겨졌어요. 지금은 권력 앞에서 지성도 무너지고, 권력에 고개를 숙이고, 진리를 타협하는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주도해서 뭘 할 순 없지만 뭐라도 참여하자고 싶어 집회에 나가기도 하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어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요즘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과학적 진실에서 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 조금 간단하게 코로나19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먼저 코로나19를 간단하게 설명해보죠. 감기와 코로나19는 비슷해요. 감기보다 전염이 조금 더 잘되는 감기, 즉 15~20배 정도 몸에 잘 달라붙는 감기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것과 싸우는 물질(알파베타 인터페론)이 나와요. 20세 이하의 젊은이들은 이런 물질이 많이 나와서 바이러스 증식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걸렸는지 안걸렸는지도 모른채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런 물질이 안 나와 바이러스 증식을 막지 못하게 돼죠. 이렇게 감염된 세포가 죽게 되면 목이 칼칼하고 그것이 가래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열도 나고, 그렇게 삼일 정도 지속돼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면 감기는 약을 먹지 않아도 낳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감기보다 감염이 잘되어 감기보다 더 잘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

〈6면에 계속〉

2021 다시복음앞에 | 지상중계

2021 다시복음앞에, 그 영광을 회복하라

▲ 왼쪽부터 박한수 목사, 현숙·에릭 폴리 대표, 조영길 변호사, 임현수 목사, 박정곤 목사(강의 진행 순)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교회와 열방의 회복을 소망하며 지난 12일 2021 다시복음앞에 대회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하나님께서 한국사회와 교회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광의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그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포된 믿음의 고백을 지상중계한다. 강의 진행 순. 〈편집자〉

"세상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을 요구한다"

복음, 그 영광의 회복(빌 1:27~30) |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다시복음앞에'라는 말은 한국교회에 굉장한 울림을 줬다.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을 꺼내주었다. '다시', '개혁', '회복'이라는 단어는 슬픈 말이다. 그것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복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에 많다는 의미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입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 복음을 듣는다고 외친다고 복음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한 인생을 살리는 것이다. 한 인생을 예수의 생명으로 뒤바꿔 놓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우리 교회의 한 복음의 증인을 소개하고 싶다. 교회에 온 지 3년밖에 안 된 사람이다. 교회를 다닌 지 1년쯤 됐을 때, 어느 날 암이 재발했다. 2년 동안 투병하다 척추까지 전이 되어 걷지 못했다. 그분은 '나 같은 인생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겠냐.'고 고백한다. 지금 그분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함께 지내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 이제 육체의 남은 삶도 거의 없지만 그 영혼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뻐하고 있다.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길래, 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는가?

세상은 복음으로 사는 한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할 능력을 상실한 것 같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복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자. 그 영광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북한 지하교회는 성경만으로 세워졌다"

성도의 소명 회복(히 13:3) | 에릭 폴리 목사(한국 순교자의소리)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이다. 위대한 개신교의 개척자였던 루터는 기독교인의 삶은 '매일 회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회개가 매일 삶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일까?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조선에 성경을 보내며 복음을 전했던 존 로스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성경'을 받아서 된 것이다. 북한 교인들은 4대를 거쳐 하나님 말씀 하나만으로 지하교회로 세워졌다. 계속되는 핍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하교회는 지금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남한의 교회는 매년 교인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성경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두 배 늘었다. 공산주의가 지하교회를 패배시키지 못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남한에 말씀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는 회개가 절실한 때다.

우리는 박해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낸 북한 지하교인들에게 배워야 한다. 주님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거라고 하셨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북한 지하교회가 알려줄 것이다. 벌써 미움이 시작됐다.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라 존 로스의 교회, 말씀만으로 세워진 교회를 따라야 할 날이 왔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기신 유산은 말씀뿐이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발과 성경이면 충분하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도움을 수용할 만큼 겸손할 수 있어야 하겠다.

"성혁명의 도전, 복음 연합으로 한국 지킨다"

나라와 민족의 회복(차별금지법 저지대책, 고전 6:9~11)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다시복음앞에'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왜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는가? 겉으로는 좋은 법처럼 보이지만, 반(反)복음적이고 반(反)성경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막아왔다. 이렇게 오랫동안 막아낸 국가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이다.

이 법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결정해주신 성별을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고, 복음의 기준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법이다. 복음을 굳게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기에 반대해야 하지만, 성경상 괜찮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권을 장악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서구교회들도 이 법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떠나버렸다.

성경은 동성애와 음행을 금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신다. 레위기 18장, 20장에 반복해서 동성애를 금하셨다. 사도들을 통해 로마서에서 동성애를 금하고 디모데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정욕을 피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음행을 정당화하는 시대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다.

어느덧 동성애를 지지하는 학문들이 세계를 점령했고 서구의 유명한 대학들과 신학교는 동성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거짓에 빠지지 않으려면 진리와 진실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복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다. 이것만이 미혹받지 않는 길이다. 거짓 학문으로 오염된 곳으로 가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상대적 진리를 맞서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이러한 법을 막는 것은 우리뿐 아니라 다음세대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내는 것이 한국교회의 귀한 사명이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한국교회가 주님께 엎드려야 한다. 회개하며 전 세계를 음란의 미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자.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복음"

나라와 민족의 회복(창 45:1~11) |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현재 대한민국은 매스컴의 영향으로 코로나의 두려움에 과하게 붙들려 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나 이 또한 두려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평안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기쁨이야말로 경건한 자의 증거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의 기쁨과 교통을 죽음으로 바꾸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의 기쁨을 주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다. 과거 200여 개밖에 되지 않던 교회가 6만여 교회로 성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많던 교회가 사라지고 메마른 땅으로 전락했다. 군사분계선이 영의 분계선인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기쁨이 북한에는 없음을 알아야 하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도 복음임을 알아야 한다.

창세기 45장 1~11절 요셉의 마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로서 골육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인다. 의식이 변한 것이다. 우리도 이같이 북한이 우리의 골육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증오와 전쟁의 두려움이 아닌 형제 구원을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 또한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우리는 과거에 에벤에셀의 하나님, 현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북한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요셉은 강자로서 군림하지 않고 섬기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은 누가 보더라도 북한보다 강자다. 강자는 약자의 약함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의 형제인 북한 주민들을 우리는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가 회복된다"

교회의 회복(행 1:8) | 박정곤 목사(고현교회)

얼마 전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 한 외국학자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쓰시려고 준비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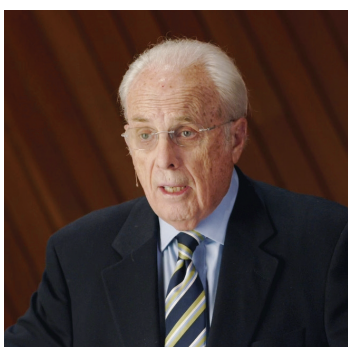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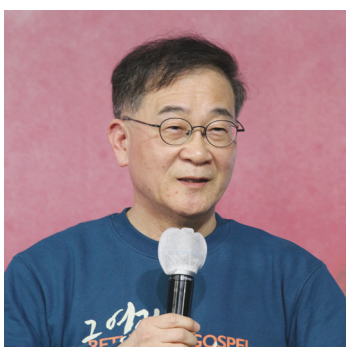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죽을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힘써 전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1965년 9월 26일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섬에 성령님이 임하셨다. 20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전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우기(雨期)에 강 건너편 마을에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강 위로 걸어서 건너갔다. 또,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계속 찬송하고 기도할 때 죽은 지 이틀 되었던 사람이 살아났다. 그 기적을 보고 주변 마을 2만 1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일하심이었다.

1989년 8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3박 4일 여름 수련회를 했다. 집회 중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늦은 밤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인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회개가 터지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새벽까지 기도가 이어지고,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했다.

오늘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온 세상에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다. 다 있어도 성령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님 있으면 다 있는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자!

Restoration

▲ 왼쪽부터 존 맥아더 목사, 주누가 선교사, 최상훈 목사, 김지연 대표, 김용의 선교사(강의 진행 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 때문이다”

교회의 회복(엡 3:7~11) | 존 맥아더 목사(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미국은 점점 더 세속화되고 기독교에 무관심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이때에 우리가 세상에 제시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인간의 죄성과 타락한 마음과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과 사망을 깨부수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역할이며, 그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전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다. 바울은 인간의 성공 원리를 전하지 않았고 출세나 도덕적 개혁을 전하지 않았다.

믿는 자의 삶에는 하늘에 속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포함한다. 성경에서 마주하는 하늘에 속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면 그 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다.

교회가 소명대로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하늘의 모든 보화가 교회와 신자의 삶에 내린다. 이 일에 바울은 순교라는 대가를 지불했다. 지금 세계 곳곳이 그러하듯 하나님을 잊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장래에는 서구 세계에서도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것은 귀중하고 값진 일이다.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구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각종, 각양각색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서이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생겨난 실체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다. 언젠가 우리가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고백하며 완전한 찬송을 드릴 날을 고대한다.

“대추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선교의 회복(마 24:14) | 주누가 선교사(지오 선교회)

한국선교가 다들 위기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위기감이 없다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한국교회 선교. 절반의 성공이라고 한다. 놀라운 결실을 거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다. 수십 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요 비천한 민족이었던 우리는 너무 부요해졌다. 울며 씨를 뿌리는 복음 전도자들과 회개의 눈물, 부르짖음이 사라졌다. 교회는 세상과 너무 닮아 욕을 먹는다. 이런 교회가 주님이 받으실만한 교회일까?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직 한 명 엘리사가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하늘의 비밀,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평생 과부와 가난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룻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따라갔다. 환난, 우겨쌈,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끝났다고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환난의 때는 거룩한 때이며 대추수에 동참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는 때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순종하고 환난을 견디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다. 한 이란 지도자가 부탁했다. “핍박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이길 믿음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때에 우리의 시선이 더욱 주님께 고정되기를 원하신다. 환난 중에도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전파되고 있다(마 24:14). 무엇이 보이는가? 무너진 교회인가? 복음을 거부하는 장애물들인가? 아니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환난은 귀한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성령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 가벼운 것이 된다. 대추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상황에 낙심 말고 말씀을 선포하라”

기도의 회복 | 최상훈 목사(화양감리교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잘 따라다니면서 순종을 잘했지만 유독 한 곳에서 다 무너졌다. 바로 기도의 자리다. 그래서 나는 목회를 할 때나 선교지에서나 ‘한 시간 기도하면 시험 이기고 두 시간 기도하면 능력 받고 세 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고 써 붙였다.

기도의 회복에 대해 세 가지를 나누고 싶다. 첫 번째는 ‘생각’이다. 생각이 포맷되어야 기도의 회복이 일어난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정렬시켜야 한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의 염려와 내 생각을 묵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정의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한 나의 모습을 정체성으로 삼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신다. 나를 예수님짜리로 정해 놓으셨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말’이다. 모든 말에는 소리가 있고 권세가 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늘 감사한 말, 기쁜 말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말함’으로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냈다면 우리도 말씀을 말함으로 주님이 인생에 아름다운 창조를 이루신다. 깨닫는 것에 멈추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먼저 감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세 번째, 기도는 양(量)이다. 오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돌파가 된다. ‘5분, 10분이 나의 한계’라고 멈추어서는 안 된다. 기도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

말씀에 생각을 정렬시키고,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돌파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기도의 회복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의 빛 비추라”

다음세대의 회복(단 12:3) |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현상 그대로 보는 시선을 세계관이라 한다. 오늘날 많은 이슈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길은 기독교 세계관으로만 가능하다. 악법과 악한 제도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선교의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1차적 선교는 복음을 들은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2차적 선교는 복음을 모든 사회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모든 영역을 말씀의 빛으로 비추는 작업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가진 누군가와 계속 부딪힌다. 이는 ‘교차로에 서 있는 삶’과 같다. 교차로에 서면 견디기 힘든 긴장감이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 이는 마치 에스더가 왕 앞에 설 때 견디기 힘든 긴장감이 있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던 것과 같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두 번의 회심이라고 크레이그는 말한다.

첫 번째 회심은 죄 된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두 번째 회심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복음 들고 교차로에 선다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은 다 양보해도 본질적인 것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베드로전서 5장에는 잠깐의 고난이라고 말한다. 잠깐 고난을 받는 것은 그 터를 견고케 하는 일이다. 여기가 바로 순교가 가능한 선교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순종이다. 어두워질수록 빛의 역할을 하며 땅이 흔들릴수록 견고한 기둥의 역할을 하며 어떤 값을 지불하더라도 사랑하는 것이다. 견디기 힘든 긴장감을 언제까지 품고 있어야 하는가? 언제까지 싸워야 사라질 것인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다. 우리의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역사와 인생의 회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 | 김용의 선교사(LOG미션 대표)

회복은 원래 것들을 다시 찾는 것, 본질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떨어졌는지,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우쳐 주셔야 진정 회복을 이룰 수 있다. 영광 그 자체였던 창조 때의 원형의 모습은 사탄의 유혹으로 비참한 지경이 되었다. 이후에도 노아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으로서는 결코 회복을 꿈꿀 수 없음이 증명됐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원형을 되찾게 해주시는 일이 성경 마지막에 기록돼 있다.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다. 인류의 절망 앞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이 선포야말로 복음 중의 복음이다!

야곱이 평생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피할 수 없는 인생숙제 앞에 섰다. 바로 에서였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왔다. 얍복강에 홀로 남은 그에게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신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지지 않자,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이 됐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아무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신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다.

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뤄진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애를 써도 운명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란 없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온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셔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형상으로 살아가게 하신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기적을 우리와 이 땅의 교회 안에 일으키실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까지 주여, 나를 깨뜨리시옵소서. 당신이 전부가 될 때까지 멈추지 마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GPNEWS]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빛나는 믿음 (3)

모든 죄를 벗어 버리라!

일러스트=이예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1~2)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벗어 버리라'는 것이다. 인생 살면서 모든 무거운 것, 거리끼는 것을 계속 지고 안고 끌고 다니느라고 죽을 지경인 우리에게 벗어 버리라고 하신다. 미련하게도 불필요한 것을 이고 지고 가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는 말씀이다. 이 얽매이기 쉬운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 버리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라톤 경주에 나서려고 하는데 무거운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뛰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일생일대의 기막힌 기회가 왔다. 정리할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다. 지금은 코로나 핑계만 대면 안 통할 게 없다. 무슨 일을 해도 '코로나' 이러면 다 통한다. 코로나라고 하면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방향 바꿀 수 있다. 학교도, 국회도 코로나만 나왔다 하면 스톱이고, 한 번 쉬면 수십억이 날아가는 공장도 확진자 몇 명 나왔다 하면 스톱이다. 지금이야말로 아마 한 세기에 올까 말까한 기회의 순간이다. 어차피 정리할 거라면 바로 지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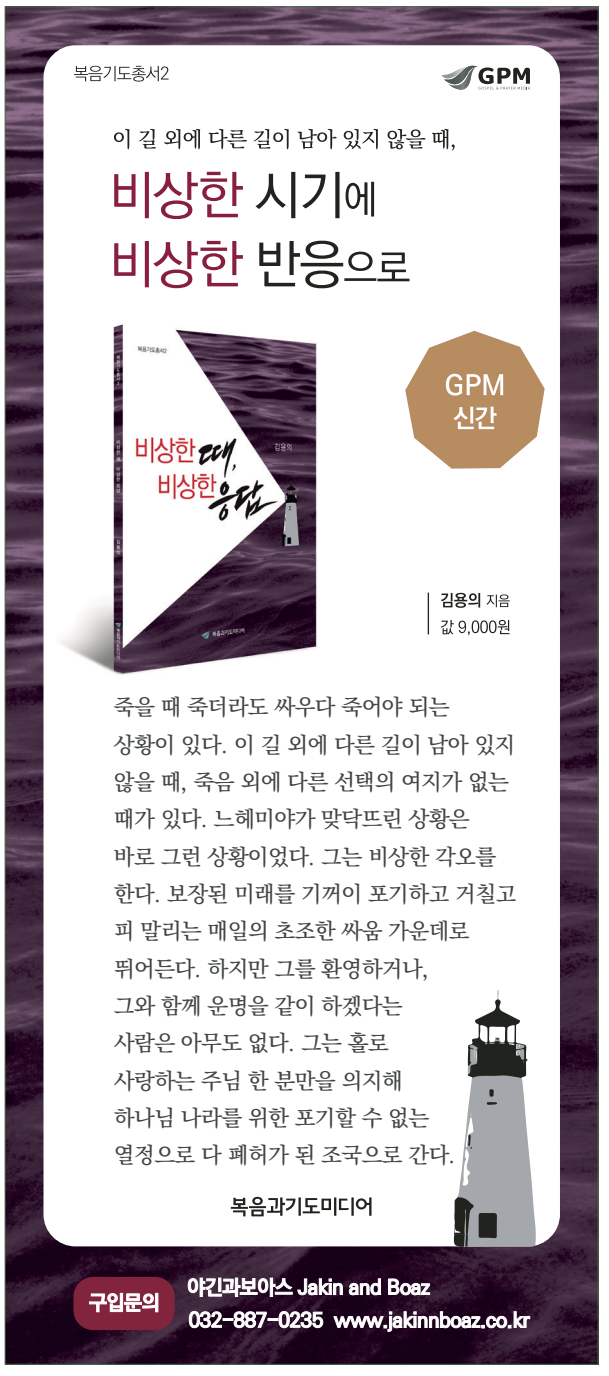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오는 동안 나도 모르게 익숙했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더 쉽게 풀어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미련 때문에, '옛 정' 때문에 하고 있던 것. 이것을 버리라는 것이다. 가지 말아야 할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했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이다. 믿음 없는 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벗어난 길, 자아 추구하는 길, 사악한 거짓 길.

이제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 조금 더 기다리면 무엇이, 코로나보다 더 센 것이 오면 무엇이 달라질까? 심판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이다. 지금!

있으면 안 되는 오만한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 결정했던 자리, 무엇이든지 내가 결론 내고, 내가 꿈을 꾸며 지독하게 안 바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신다. 우리의 영적 신분에 걸맞게 무거운 것들, 거리끼는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떠나라. 죄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을 기억하라. (2021년 1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Interview 〈3면에 이어〉

코로나 이슈에 대해 말하다

감염되어 증상이 나타나면 발병이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감염이라고 해요."

- 그러면 백신은 그 바이러스를 예방하자는 것인 거죠?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면역력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항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면역력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 이태원의 게이바에서 춤을 춘 수백 명의 젊은이들 가운데 30% 이상이 양성이 나왔는데 아프다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어요. 건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나이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후, 우리 몸과 조직 안팎을 덮고 있는 상피 세포가 죽고 그 벽이 무너지면서 바이러스가 혈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백신이 혈관에 들어가면 비로소 후천성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항체를 만드는 면역 반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에 감염만 되고 증상 없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99.4%라고 해요. 감염이 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발병자는 0.6%에 지나지 않아요. 이 발병자 중에서 1/3인 0.2%만 죽고 0.4%는 발병했지만 살아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우리 인간에게 감염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유전자조작을 감행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그것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면서 치사율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변이가 생긴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해서 감염되자마자 우리 몸을 파괴하고 벽이 무너지며 혈관까지 침투할 수 있어요." [GPNEWS]

C.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진료 가운을 입고 있는 이왕재 박사. 제공: 이왕재 박사

믿음의 삶

“영희야, 너 나만 의지할 수 있니?”

말씀이 결론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나를 방치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 때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매일십자가학교 훈련을 받게 됐다. 첫 강의부터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더불어 ‘복음을 영화롭게하라’는 책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는 시간들이 생겨났다. 그동안 나의 원함을 좇아 아무 죄책감 없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 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해주시는 시간을 보내게 됐다.

두 번째 강의를 듣고 마음에서 씨름이 시작됐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알러지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들으며, 나의 관계 안에도 죄가 들어와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그쪽에선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사과를 하고 만나자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다.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일러스트=고은선

그런데 그 주간에 둘째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입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화농성 관절염이 발병해 염증수치가 최고치에 달했다. 병원에서는 곧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병원을 믿을 수 없어 익숙한 상식과 통밥으로 지인들을 통해 서울 큰 병원을 알아봤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의술을 의지했다. 그때 주님이 ‘너 나만 의지할 수 있니? 나만 바라볼 수 있니?’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았다. 극심한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결단했다. 눈만 뜨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렇게 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한 시간을 통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가르쳐주셨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주셨다. 그리고 모태신앙이지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딸아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도 갖게 하셨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안 하게 되었다.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살던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놀랍게 일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넘어져도 다시 나아갈 것을 결단한다. [GPNEWS]

이영희

복음의 소리 316 1670-3160 316 Q+A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전화(1670-3160)의 다양한 상담사례를 요약, 소개합니다. 영혼의 목마름 가운데 마음을 나눠준 내담자들의 경험과 나눔이 동일한 어려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통로 된 내담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자〉

죄인 된 삶을 청산했는데,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Q 오랫동안 윤락업소 생활을 하던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복음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흔들리고 죄에 자꾸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중요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느낌이나 체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창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실족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일로 인해 겸손해지며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의 깊이를 점차 체험적으로 알아갑니다.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죄인’을 끝까지 포기치 않으십니다.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인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약속(말씀)이 믿어지는 일이 가장 큰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나의 모습을 직면한 현실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느낌과 또 다른 체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말씀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세요. 또한 겸손히 주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가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GPNEWS]

부흥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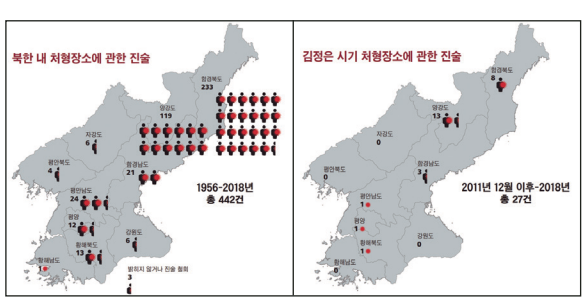
‘한국 영상 관람’, ‘음란 행위’ 했다고 처형하는 김정은 정권 잔혹사

한반도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웃이 살고 있는 북한의 회복을 소망하며, 북한의 현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지난 10년 동안 처형 집행을 지속하면서도, 국제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의식해 처형 소식이 외부세계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개국 출신 인권 운동가와 연구자들이 설립한 한국의 인권 조사 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김정은 정권 10년 동안의 처형 형태를 분석 조사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지난 6년 동안 탈북민 683명을 인터뷰한 기록을 토대로 작성됐다.

이 단체 이영환 대표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처형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참관시켜 공포감을 불어넣는 게 김정일 시대의 특징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최대한 가리고 숨기며 처형하는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양강도 혜산 지역을 집중 분석한 결과 처형이 과거처럼 시장이나 운동장 등 번잡 지역이 아닌 중국 접경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혜산비행장 활주로 주변, 개활지, 언덕과 산 등에서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 김정은 정권의 처형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만든 지도. 출처: 김정은 시기의 처형 매핑: 국제적 압력에 대한 북한의 반응 보고서 캡처

보고서에는 처형에 관한 442건의 진술과 암매장과 소각 등 시체 처리 장소에 관한 30개의 증언이 담겨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 처형 장소에 관한 증언 27건 가운데 공개처형 23건, 이 중 총살 21건, 교수형 2건이 진술돼 있다. 공개처형된 혐의는 한국 영상 시청·배포 7건, 마약 관련 5건, 성매매 5건, 인신매매 4건, 살인 또는 살인미수 3건, 음란 행위 3건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절도 등 경제 사범들에 대한 처형이 많았던 반면 김정은 시대에는 외부 정보 유입과 살포 혐의로 처형한 사례가 늘었다고 지적하며, 북한 정권은 사람들을 물질적·정치적으로 통제하지만, 생각과 사상의 변화나 외부 세계와 북한 사회를 비교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지도부는 지난 1~2년 사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채택해 비사회주의 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 감시 강화에 더욱 신경 쓰고 있는 것이지 인권 상황의 개선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처형은 계속되고 있다. [GPNEWS]

유엔, “북한 영양 결핍 42.2%… 아·태 38개국 중 최악”

민생파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개발 계획을 멈추지 않는 북한 주민들의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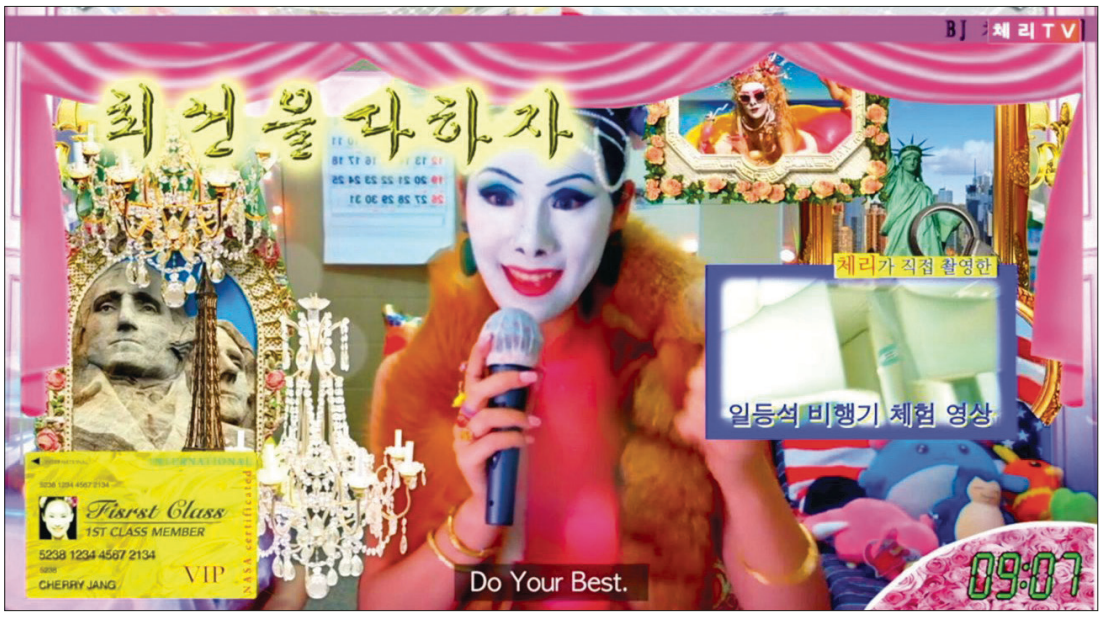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유니세프)이 15일 발표한 ‘2021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영양’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의 영양 결핍 인구 비율은 42.2%로, 아·태 지역 38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6일 보도했다. 인구수로는 북한 주민 1090만 명이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0~2002년 사이의 820만 명과 비교하면 270만 명 증가한 것이다.

한편 북한 내 5세 미만 아동 발육 부진 비율은 18.2%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발육 부진은 성장과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영양 결핍 등으로 또래보다 신장이 작거나 뇌와 인지능력 발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고 규정한다. [GPNEWS]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류성실의 〈BJ 체리장 2018.9〉

교회에 90년대생이 온다



1993년생의 류성실 작가는 소위 엄친딸이다. 아직 젊지만 벌써 미술계의 굵직한 상을 휩쓸 정도로 역량과 영향력을 갖췄다. 그의 〈BJ 체리장 2018.9〉는 동영상 작품으로, 90년대생이 주축이 된 '유튜버 시대의 자화상'쯤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작가는 아프리카 TV에서 BJ로 활동하면서, 이 새로운 세계를 '성실하게' 관찰하였다. 위의 작품 〈BJ 체리장 2018.9〉에는 스스로를 재미 교포 "체리장"으로 소개하는 작가 자신이 등장한다. 류성실의 '부캐'인 체리장이 하는 이야기들이나, 요란한 화면은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에 단골로 등장하는 신종 사이비 종교 화면과 참 많이 닮았다. 이에 대한 작가의 시선은 이 모두를 긍정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거나, 신랄하게 비판하지도 않는다. 단지 90년대생의 시선으로, 기성세대가 일군 세상을 관찰할 뿐이다.

작품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중요 포인트가 있다. 첫째는 재미 교포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자기 주장을 꼭 믿어야 한다고 우기는 장면. 한국교회에 남아 있는 맹목적인 미국 제일주의에 대한 희화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문구가 반복되는 장면으로, 눈물겨운 자기 의를 바라보는 다음세대 특유의 허무와 냉소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부자되는 법을 1. 항상 웃자 2. 돕고 살자 3. EQ를 기르자로 요약한 부분에서는 기복신앙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담겨 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전혀 무관하게 성장한 기복주의적 교회와 이단 종교 방송을 따라 만든 것이라니, 이제 막 사회진출을 시작한 이들에게 기성세대로서 미안함마저 들었다. 최근 사회 여러 방면에서는 90년대생들의 활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세대를 공부하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분석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교회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G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그림설명: 류성실, 〈BJ 체리장 2018.9〉, 2018년, 런닝타임 11min 싱글채널, 동영상 링크 https://vimeo.com/299623804, 작가 사이트에 게재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예수님도 2000년 전 태아로 오셨다"… 성탄절 태아생명 존중 가두 캠페인

> "
> 우리나라에서
> 1년간 140만여 명의
> 태아가 임신된 이후
> 4명중 1명만 살아남고
> 3명은 태중에서
> 잔인하게 죽음을
> 당하고 있는 셈이다.
> "

"예수님도 2000년 전 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낙태되지 않아서 태어날 수 있었어요."

전국 120개 지역에서 거리생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이 이번 성탄절을 맞아, 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태아생명의 소중함을 담은 성탄연하장을 제작, 배포하는 낙태 반대 태아생명 존중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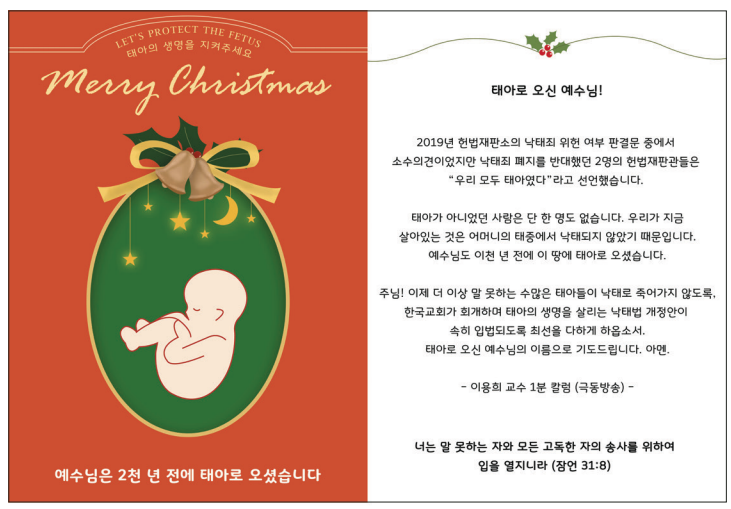
그동안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등의 형태로 생명존중운동을 실시해온 이용희 대표는 "지난 3월, 34주된 태아를 낙태로 죽인 의사가 낙태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며 "이번 성탄절을 맞아 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가 담긴 성탄연하장을 나누며, 생명의 소중함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극동방송 1분 칼럼을 통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여부 판결문에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우리 모두 태아였다.'라고 선언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2017년 국회 회의실에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가 주최한 세미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낙태 건수는 하루에 3000건으로, 연간 약 110만 건에 해당하는 태아의 생명이 피어나지도 못한 채 태중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 낙태 1위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연간 출생률이 30만 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1년간 140만 명의 태아가 임신된 이후, 4명 중 1명만 살아나고 3명은 태중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에스더기도운동은 이 캠페인에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7000장의 성탄카드와 4만 장의 성탄연하장을 한도 내에서 무료로 발송하면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GPNEWS]



▲ 성탄연하장(위)과 성탄절 태아생명 존중 가두 캠페인 피켓. 제공: 에스더기도운동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1. 12. 3 ~ 12. 19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강종채 권순효 김다경
김사회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숙자 김신애 김원숙 김유남
김정희 노은옥 박민숙 박신희
박용자 석정순 오성애 은종숙
이근주 이은주 이장원 이준진
정금자 정영숙 조재희 차익수
차인순 최근희 최정숙 하은숙
무명

교회 및 단체

게르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샘물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양덕원감리교회 오보평강교회
은혜신일교회 주소망교회
하원교회 헵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